닛신보 - 중국에서 신사용 및

어린이용 편성지 발매

닛신보는 중국 절강성(浙江省)에 세운 합판회사(合辦會社)인 항주일면(抗州一綿)을 활용하여 신사용 외의 및 어린이 옷 용의 편성지(編成地)를 생산하여, 중국에 있는 일본계 봉제 공장에 판매하기 시작하였다.

항주일면은 직물뿐만 아니라 편성지를 방적에서 편성, 가공까지 일관 생산할 수 있는 설비를 갖추고 있다. 편성지의 월 생산능력은 현재 100톤이며, 이 생산품의 전량을 닛신보가 처분할 수 있도록 계약되어 있다. 생산시설의 일부가 2002년 7월부터 가동하기 시작하였으며, 2002년 말에는 시설의 50%까지 가동하게 되었고 금년 중기(中期)경에는 완전 가동시킬 계획이다. 2 3년 후에는 증설을 하거나 외주(外注)를 활용하여 월 생산을 200톤으로 배증(倍增)할 계획이다.

닛신보는 편성지 판매액의 약 30%를 어린이 옷 용으로, 약 10%는 신사 외의 용으로 돌리게 된다. 닛신보는 봉제거점을 일본에서 중국으로 옮기므로 이들 두 용도가 차지하는 비중은 일본에서 생산되는 편성지의 판매규모 감소에 따라 낮아지게 될 것으로 보고 있다. 여기서 감소되는 수량은 “항주일면”을 활용하여 보충하게 될 것이다.